

# 안동의 어느 刊役所에 보낸 메시지

-『西谿集刊役日錄』의 편지와 한시를 중심으로-

이 미 진\*

1. 들어가며
2. 『서계집간역일록』의 구성 및 내용
3. 刊役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 (1) 편지의 경우
  - (2) 한시의 경우
4. 나가며 : 『서계집간역일록』의 자료적 가치와 그 의미

## 국문초록

본고는 西谿 金在燦(1811~1888)의 『西谿集』 간행 과정을 일자별로 기록한 『西谿集刊役日錄』를 대상으로 당시 안동 유림들이 주고받은 문자 행위에 주목해보았다. 『서계집』 간행은 김재찬이 고인이 된지 27년 뒤인 1915년, 그의 손자 金永奎 주도로 착수되었으며, 1915년 11월 28일부터 1916년 3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의 간행 일정이 『서계집간역일록』에 기록되어 있다. 전체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간역소 인력들의 업무 분장, ② 간역소에 내방한 인물, ③ 간행을 위한 지출과 수입 내역, ④ 扶助 명단과 해당 금액, ⑤ 문집 배포처, ⑥ 간행을 전후하여 받은 편지, ⑦ 문집 완성을 사당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告由文, ⑧ 문집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mijin8080@hanmail.net

간행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한시 등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편지와 축하시에 주목하되, 편지에서는 문집 내용의 교정 사실, 발문을 청탁한 장면, 완성본의 배포 정황 등 간행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시에서는 간역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공동의 詩作 장면을 확인하였다. 『서계집간역일록』에 수록된 편지와 한시를 통해 문집 간행을 두고 벌어진 당시 안동 유림들의 문자 授受 행위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한문 창작이 종식을 고한 줄로만 알았던 근대에도 한문자의 授受가 여전히 지식인 사이에서 유효한 교류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 저자의 후손이 先祖의 문집 간행에 그치지 않고 간역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日錄 형태로 제작한 것은, 가문 내 결속과 자기 가문의 사회적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 아니라, 기록을 통한 선조에 대한 메모리얼 기능에 주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계집간역일록』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아 보인다.

◆ 주제어

『西谿集刊役日錄』, 西谿 金在燦, 刊役, 문집간행, 간역일록, 출판일기

## I. 들어가며

문집이란 撰者의 생전 遺文을 총망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찬자의 저작 의도와는 무관하게 編者의 편찬 의도에 부합하는 작품만을 선별하여 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집 간행 방식이다. 즉, 생전에 간행을 대비해 두었다가 사후 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찬자 사후 고인의 후손이나 제자가 편찬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망자의 실제 창작 의도와 별개로 타인 주도로 작품이 선별되어 편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문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적지 않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을 기준으로 조선후기 인물의 문집이 8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 찬자의 생존시기와 문집의 간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한문학 연구에서는 여전히 작품 내용에만 집중할 뿐 그것이 문집에 수록된 경위, 혹은 다른 판본과의 비교 고찰 등 문집의 간행 및 편찬 배경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문집은 저자 사후 ‘타인’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自編原稿인가 刊本文集인가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문집이 간행된 지역의 사회·문화·역사, 그리고 문집에 대한 서지학적 지식 등 다양한 인문 사회학적 이해가 문학 연구와 연동될 때라야 해당 작품의 실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집 간행과 관련한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해둔 ‘刊役日錄’이란 것이 있다. 문집 刊役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문헌을 지칭하는데 일종의 출판일기라 할 수 있다. 문집 간행 경위는 해당 문집의 序跋文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역일록에는 서발문에서는 읽어낼 수 없는 정보들, 예컨대 작품의 교정 내용, 유림들간 주고받은 通文, 간행 허가 과정, 간행에 투입된 인력, 간행 비용 등등 간행 과정에서 노정된 다양한 현상을 엿볼 수 있어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문집 간행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주로 판본이나 형태사항 등의 서지학 분야 및 문집 간행을 둘러싼 당대 정치적 문제 등에 대

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sup>1)</sup> 최근 들어 간역과 관련하여 유교 사회에서 책판 제작이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 보거나, 간역일록을 통해 문집 간행 비용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주목할만한 일부 간역일록을 번역하는 등 간역일록의 자료적 가치는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sup>2)</sup>

현재까지 알려진 간역일록은 몇 종에 불과하다. 百弗菴 崔興遠 문집에 대한 『刊役記事』(작성시기 : 1814년 8월~1815년 2월), 退溪 李滉 문집에 대한 『先生文集改刊日記』(1817년 1월~1817년 8월), 樊巖 蔡濟恭 문집에 대한 『刊所日記』(1823년 7월~1824년 6월), 丹溪 河緯地 문집에 대한 『刊役所日記』(1868년 11월), 大溪 李周禎 문집에 대한 『大溪集刊役時日記』(1884년 1월~1885년 12월), 梅軒 琴輔 문집에 대한 『先祖文集刊役時日記』(1909년 1월~1909년 8월), 後溪 李頤淳 문집에 대한 『先祖文集刊役時日記』(1909년), 퇴계 이황 문인들의 及門錄에 대한 『及門錄營刊時日記』(1913년 4월~1913년 6월), 西谿 金在燦 문집에 대한 『西

- 
- 1) 문집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개인 문집 편찬을 둘러싼 학파간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사학 분야 및 문집 판본 등 서지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문집 간행 절차에 대한 것이다. 관련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정문, 「조선중기의 문집편간과 문파형성」,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 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조선사연구회, 2007 ; 오향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2008 ;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1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 ;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보』 34, 한국서지학회, 2009 ;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 신은선, 「屏谷 權槩의 『屏谷先生文集』 간행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고수연,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의 문집간행과 그 의미」, 『역사와담론』 79, 호서사학회, 2016 ; 정용건, 「中宗 연간 문집 편찬간행 양상과 그 의미 - 前代 문인의 문집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5, 한국고전문학회, 2019 등등.
- 2) 김순석, 「유교사회와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사적 의의: 선생문집개간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 한국고문서학회, 2015 ; 신상목 외, 『문집판각의 기록 간역시 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등.

谿集刊役日録』(1915년 11월~1916년 3월), 小訥 盧相稷 문집에 대한 『刊所日録』(1933년 3월~1933년 12월) 등이 그것인데<sup>3)</sup>, 이는 모두 비슷한 시기 즉 19세기 이후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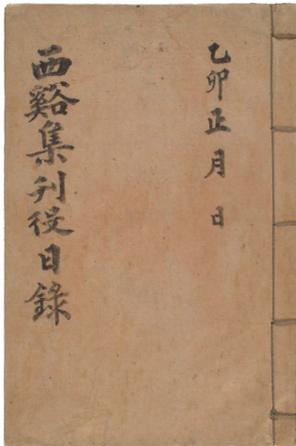
주지하듯 조선조 개인 문집 간행은 17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8~9세기에 이르면 급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 중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것이 과반수를, 그중에서도 안동에서 발행된 문집 수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헌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작성된 『서계집간역일록』를 중심으로, 간행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당시 안동 유림들의 문자 행위에 주목해보려 한다. 이 자료는 여느 간역일록과 비교해볼 때 구성이 특이하고, 독특하다 할 만큼 한시문 수록 비중이 높아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 II. 『서계집간역일록』의 구성 및 내용

1916년 3월 어느 날, 光山 金氏 가문에 서계 김재찬(1811~1888)의 『西谿集』(3책 6권) 간행되었다. 간행이 착수된 1915년 11월 28일부터 완료된 1916년 3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의 간행 일정이 『서계집간역일록』(이하 ‘서계간록’으로 약칭)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전체 분량은 44면, 1면에 10행 20자). 김재찬은 광산 김씨의 烏川 佳野 두 파 가운데

3) 간역일록 목록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남권희, 「간재선생문집의 문집간역시일기 읽기」, 『목관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84쪽 ; 박순, 「간역시일기 해제」, 『문집관각의 기록, 간역시 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 한국국학진흥원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http://diary.ugyo.net>)’ 사이트 등.

4) 김명자는 안동지역에서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주요 요인으로, 첫째 퇴계학파의 본원지로서 문인이 많아 그들의 관련 저술이 많은 점, 둘째, 동성마을을 기반으로 한 문중활동이 활발했던 점, 셋째, 남인들의 정치적 상황 등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 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조선사연구회, 2007, 92~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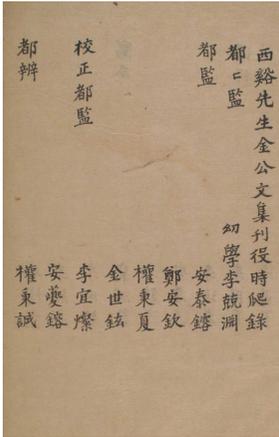
데, 가야의 惟一齋 金彦璣 후손에 해당한다. 『서계집』은 김재찬이 고인이 된지 27년 뒤인 1915년, 그의 손자 金永奎 주도로 간역이 착수되었으며, 拓庵 金道和(1825~1912)의 서문과 曉庵 李中轍(1848~1937)의 발문 작성을 끝으로 간역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게 되었다.<sup>5)</sup> 서계간록은 여느 간록과 달리 크게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개의 간록들은 일자별 그 날 그 날 있었던 일과를 간략히, 때로는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만, 서계간록의 경우 일자별 기록에 그치지

않고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① 간역소 인력들의 업무 분장, ② 간역소에 내방한 인물, ③ 간행을 위한 지출과 수입 내역, ④ 부조 명단과 해당 금액, ⑤ 문집 배포처, ⑥ 편지, ⑦ 고유문, ⑧ 축하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日錄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은 ②가 유일하며, 여기에는 날짜별 방문객 명단과 돌아간 날짜가 부기되어 있다.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서계집』은 총3책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1에 한시 152首, 卷2에 輓詞 54편, 卷3에 書 18편, 卷4에 書 27편, 卷5에 記 2편, 識跋 2편, 上樑文 2편, 銘 2편, 告辭 2편, 哀辭 4편, 祭文 14편, 墓碣銘 1편, 行錄 1편, 遺事 2편 등, 卷6(附錄)에 輓詞, 誄文, 祭文, 行狀, 墓碣銘, 遺事が 수록되어 있다. 서문은 金道和(『拓庵集』卷13, 「西谿金公遺集序」)가, 발문은 李中轍(『曉庵集』卷7, 「西谿金公文集跋」)이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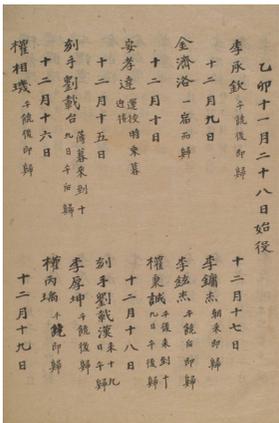
### ① 업무 분장[刊役時爬錄]

[총 56인에 대한 간역 업무 분장]



- 都監 : 李兢淵
- 都監 : 安泰鎔 鄭安欽 權秉夏 金世鉉
- 校正都監 : 李宜燦 安夔鎔
- 都辨 : 權秉誠 安燦重 李赫淵 李用赫
- 寫本 : 裴淵載 李鉉杰 安孝達 李延泰
- 運板 : 李用夏 李鼎夏 李魯烈 安教庠 金在萬  
權丙瑀 鄭祈欽 權相璣 李在淵 金達鉉
- 監刊 : 李直烈 李在政 李教成 薛鎮世 權相烈  
李洙遠 權秉學 金永甲 安承甲
- 板校 : 李厚坤 鄭承虎 金永翼 權應相
- 監印 : 李圭淵 柳弼榮 李圭鎬 安承憲 金鍾漢  
李道善 李龍鎮 李用甲 李在韶 李中瑩  
鄭承驥
- 直日 : 李鏞杰 李羲哲 權寧穆 金進洙 安承德  
李兢模 安孝甲

### ② 일자별 내방객 명단



[1915년 11월 28일~1916년 3월 25일]

- 총 113명  
(중복예상. 11월 1명, 12월 43명, 1월 5명,  
2월 11명, 3월 53명)
- 돌아간 날짜 및 부조 유무



⑤ 배포처 [頒册記]

陶山書院  
 上溪李參奉宅  
 遠村李龍山宅  
 宜仁李眞寶宅  
 溪南李慶州宅  
 曉岑李參奉宅  
 下溪李響山宅  
 良坪李烏川宅  
 烏川後凋堂宅  
 巨村雙碧堂宅  
 烏川濯清亭宅  
 汾川李龔巖宅  
 通村金氏門中  
 通川李氏門中  
 西谷權冲齋宅  
 涵底金氏門中  
 梧麓金鶴沙宅  
 金忘窩宅  
 鹿洞李敬庵宅  
 大寺洞金栢岩宅  
 菑浦丁氏門中  
 古川朴氏門中  
 斗西權氏門中  
 水島朴氏門中  
 三山柳西坡亭  
 水谷柳氏宗宅  
 柳輔川宅

[100처] 陶山書院, 上溪李參奉宅, 遠村李龍山宅, 宜仁李眞寶宅, 溪南李慶州宅, 曉岑李參奉宅, 下溪李響山宅, 良坪李烏川宅, 烏川後凋堂宅, 烏川濯清亭宅, 汾川李龔巖宅, 通村金氏門中, 迂川李氏門中, 西谷權冲齋宅, 海底金氏門中, 梧麓金鶴沙宅, 金忘窩宅, 巨村雙碧堂宅, 鹿洞李敬庵宅, 大寺洞金栢岩宅, 菑浦丁氏門中, 古川朴氏門中, 斗西權氏門中, 水島朴氏門中, 三山柳西坡亭, 水谷柳氏宗宅 등 하략.

⑥ 축하편지 [賀狀]

[총 6통] 李中轍, 李運淵, 權仲夏, 李用赫, 李晚璟, 李尙鎬 등 6인.

刊役時賀狀  
 拜謝書  
 伊漢文右 執事  
 遠昨幾年豈無念到根秋之日而如非的便緊則  
 處遂不能根別書墨者乃老情因循之習而時秋下  
 之行亦不免過不入之嫌然足絲意奇趣歸之故非  
 汲思無心之過矣意外珍翰承自成君裡歷道懣  
 懸露惠奉奉者猶有此心所不及甚至有揪露虛枉  
 之事此是欲無愧自明得手惺惺之餘謹當履用萬  
 相舍下兀瑣之不得不已者能隨過以安之志業又

⑦ 고유문 [告成文]

[1편] 金永奎

西銘集告成文  
 嗚呼兩君溫王其性精舍其資服覽晚惜就正江華  
 薰陶德性傳習心學經史子集淹貫熟復攷禮詳博  
 析理要約規模謹嚴階級端的成已成物士多振作  
 藏弄中行未遠傳奇及此叔李恐復詳在珠咳寶唾  
 韜光眩彩物力麗錦繁難巨性精之約之六卷三冊  
 全翻之彩全易之味填補縫漏整理帝席乃付制刪  
 載極執印公傳百世嘉惠後人茲消吉辰敢告厥端  
 記文集刊役時賀韻  
 記曰先祖有德而不知不明也知而不傳不仁也

⑧ 축하시 [賀韻]

[총 13수] 金翰周, 金永奎, 金寅洙, 金胄和, 金永翼, 權秉準, 安承國, 李直烈, 權相烈, 薛鎮世, 柳東濬, 安燦重, 李學基 등 13인.

十載經營始 克成河圖問日乃知有周龍院宇香猶  
 雙雁萬門庭道復明項鋒有效策傳故手澤如新寓  
 墓誠為質有推精力費而今善述古家聲  
 竹溪安燦重拜稱  
 又  
 柳序甲篋晚來會待斯文氣數子磨去春山草尚  
 藪塵磨蓄匣鏡金明良工澁工成瑣巧多士給口各  
 效誠願有肯慕能繼述漢西不遠古家聲  
 永春李學基拜稱

①은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으로, 都都監 이하 直日에 이르기까지 총 56인에 대한 분정 기록이, ②은 일자별 내방객 명단과 그에 따른 부조 유무, ③은 종이와 떡 구입비, 각수 인건비, 운판 비용, 식대 등 간행에 들어간 지출 및 수입 내역, ④는 개인 및 문중(55처)에서 보내온 부조액(473냥) 및 명단, ⑤에는 『서계집』 완성본 100여질의 배포처 명단, ⑥에는 간행 전후로 받은 편지 6통, ⑦에는 간행 완성을 사당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告由文, ⑧에는 간역을 축하하며 지은 한시 13편이 기록되어 있다.

기존 연구를 참고해보면 간역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sup>6)</sup> 먼저 해당 지역의 유림들에게 通文을 돌려 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날짜와 장소를 고지하면, 지정된 날짜에 모여 논의를 한다. 간행이 확정되면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爬任이라 한다(서계간록 ①부분을 ‘爬錄’이라 명명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업무 분장에 따라 본격적으로 간역이 시작되면, 원고의 교정 및 書寫 작업을 진행한 뒤 刪版을 운반하고 각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출판 원고가 확정되면 이를 최종 교정하여 登梓本을 만들고, 이를 감재 감인 부서에서 검사한 뒤 인출하며, 이후 문집 간행이 완료되면 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고유문을 올리며 영구 보관을 도모한다. 간역 비용은 보통 기존에 모아둔 자금과 주변 친지들에게 받은 부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지출 내역 및 부족금액 등을 기록한 장부가 流用錄이다. 간행 주체자와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있는 자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특정 개인이 쾌척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의 계금을 마련하여 불어난 이자로 충당하거나, 간행 문집 속에 자신의 선조에 대한 묘갈 행장류의 글이 들어있는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낸 부조금으로 간행 자금을 마련한다. 이 부조금에 대한 기록이 바로 부조기인 것이다. 완성된 문집은 향교 서원 등 지역사회와 공공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하며, 그 외 출간 주체자와 혈연 지연 등이 있는 문중

6) 남권희 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 한국국학진흥원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http://diary.ugyo.net>)’ 사이트 참조.

및 개인에게 배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에 따라 반책기에 배포처가 기입되어 있다.

서계간록은 1915년 11월 28일부터 기록이 시작되는데, 2주 뒤 12월 10일 기사에 ‘안효달이 저물녘 관목을 운반할 때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점과, 運板 작업은 원고 내용을 베껴 적는 書寫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록 작성 이전에 서사 작업은 이미 이루어진 듯하다. 이 날의 기록을 제외하면 간역 관련 언급은 일체 보이지 않으며, 간역소에 내방한 인물들의 출입 날짜 및 부조 여부만 확인될 뿐이다. 즉 일자별 기록이긴 하나, 간역에 대한 실황 전달보다 방문객의 출입을 기록해 둔 時到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여덟 항목 가운데 필자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⑥과 ⑧인데, 편지와 한시문을 통해 간역 과정에서 일어난 양자간의 ‘문자 授受 행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刊役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 1. 편지의 경우

먼저 편지글을 살펴보자. 총 6인이 작성한 편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편지 하단에 작성자의 성명과 작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작성 시기순으로 배열하여 읽어보면 간행 과정을 대략 엿볼 수 있다.

수록순서	작성시기(작성순서)	발신자
1	1915년 12월 10일(2번째)	李中翰(1848~1937)
2	1916년 08월 17일(6번째)	李運淵(1864~1940)
3	1916년 04월 13일(5번째)	權仲夏(1865~1925)
4	1916년 03월 24일(4번째)	李用赫( 미 상 )
5	1916년 02월 08일(3번째)	李晚璟( 미 상 )
6	1915년 11월 06일(1번째)	李尙鎬(1868~1941)

작성 시기순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해당 편지를 수습한 순서에 따른 것이거나 작자의 생년이 이른 순으로 수록한 것인 듯하다. 작성 날짜 및 편지 내용에 따르면, 6번이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는 간역을 위해 종이를 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 1번·5번·4번은 원고 교정건에 대한 견해와 부조금 전달 관련 내용이, 그리고 3번·2번은 간행 상황에 대한 질문과 간행 완성에 대한 축하 및 반질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 있다. 6통의 편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작성된 것은 이상호 편지(6번)이다.

冊紙를 구해둔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제야 겨우 보내드리는 건 인편이 없었기 때문이니 헤아려주심이 어떠할는지요. 종이값은 잘 받았습니다. …… 한 냥의 돈을 웃으며 받아주심이 어떠할는지요.<sup>7)</sup>

1915년 11월 6일 작성된 것으로, 간역소 측에서 이상호에게 간행에 필요한 책지를 구해달라고 일전에 요청했었으나 그간 인편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보내준다는 내용으로 보아, 판각 직전에 작성한 듯하다. 그리하여 이상호는 책지와 함께 한 냥의 부조금도 함께 보내주었다. 문집 간행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비 조달 문제였다. 물론 재력은 있으나 정성이 부족해 오랜 세월 상자 속에 원고를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도 있었지만, 간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었다.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 저자의 후손이 官力을 활용하여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서계집』은 앞서 ‘간행 경비[印刷時流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근의 많은 유림들의 십시일반 덕에 간역이 착수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부조기에 작성된 수많은 명단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한스럽게도 그대의 명쾌한 식견이 선대와 맺은 계분의 중합 보다 뒤에 있

7) 『西谿集刊役日錄』 36면, “冊紙求置已久, 而今纔送去, 蓋緣沒便也, 恕諒如何, 價錢謹領耳……一兩文, 笑領如何.”

다 여겨 문자의 요청을 살피지 않고 곧 제게 한마디 발문 작성을 요구하시니, 이는 참으로 천려일실입니다……하찮은 제 견해로 생각해볼 것 같으면, 글 가운데 ‘靑紅’ 아래부터 ‘處也’까지는 굳더더기 말을 가져온 것이니 삭제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猶恐’ 이하의 말뜻은 앞서 교감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혐의가 있으니 ‘再而’까지의 24자는 제거하십시오.<sup>8)</sup>

1915년 12월 10일에 이중철이 작성한 것으로, 그는 『서계집』 발문 작성자이기도 하다. 위 내용에 따르면, 그는 발문 뿐 아니라 원고 교정까지 맡았던 것인데, 통상 최종 교정본을 교정한 이 가운데 명망이 있는 자에게 서문 혹은 발문을 맡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서문과 발문을 각각 책머리와 책말미에 넣은 뒤 판각에 실제 사용될 登梓本이 제작되기 때문에, 발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출판 완료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9)</sup> 물론 서발문을 받아놓고도 여러 사정에 의해 수년, 멀게는 수십 년 동안 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 않지만, 이중철이 실제 2월 상순경에 발문을 지어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편지는 등재본 제작을 앞둔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철의 발문에 따르면, 김영규가 발문 청탁을 위해 편지에 적어 보낸 말은 이렇다.

“저의 조부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고, 저의 아버지께서 들인 정성과 노력이 여기에 깃들어있건만, 유고를 넣어둔 상자가 보관해두는 동안 종이 슬어가니 날이 갈수록 두렵기만 합니다……6권 3책의 원고를 각수에게 맡긴 뒤 이제 간역의 일이 절반에 접어 들었으니, 문집 말미에 한 말씀 기록해주는 일을 선대와 계분이 있는 그대가 해주실 줄로 믿겠습니다.”<sup>10)</sup>

8) 『西谿集刊役日錄』29면-30면, “但恨明快之見, 爲後於先契之重, 不審於文字之取, 乃求吾一言以識後, 是誠千慮之失……如欲以鄙見爲商量, 其中則靑紅下至處也, 拾取剩語, 刪去無妨, 猶恐以下語意, 有嫌於先校諸家, 至再而廿四字去之.”

9)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28쪽을 참고하였다.

10) 李中輦, 『曉庵集』卷7, 〈西谿金公文集跋〉, “日公之孫永奎, 宋其從子萬洙, 具狀碣以致書曰, 吾祖之咳唾在是, 吾父之誠力在是, 而篋棄蠹損, 日益爲懼, 所以不量力綿, 遍懇校家, 就簡尤約, 方以六卷三弓, 付諸劊劊, 事已過半, 眉識一言, 敢恃先契如執事.”

사람들의 公議에 의해 문집 간행이 확정되고 서발문의 작성자 또한 공론을 거쳐 선정되었던 만큼 당대 명망이 두터웠던 이증철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영규는 ‘선대와 의 계분[先契]’ ‘대대로 사귀어 온 정의[世誼]’라는 이름으로 이증철과의 인연이 맺어질 수 있었다. 이후 1916년 2월 8일에 작성된 이만경(5번) 편지의 ‘이미 인쇄되어 반질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니다[已至印布之境云]’<sup>11)</sup>라는 기록으로 보아, 실제 2월 초순 즈음 발문을 제외한 판각이 완료되었고, 이후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편지를 보자.

- 게다가 선왕고 부군의 문집이 이미 간행되었다고 들으니, 여러 군자들의 부지런하고 간절한 정성과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는 뜻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sup>12)</sup> (1916.04.13. 권중하 작성)
- 지금 선대부 서계옹의 유집이 이미 간행·배포되었으니 참으로 우리들의 다행입니다. 게다가 또한 감사하게도 저희 마을에까지 보내주시다니요. 선대를 잘 계승하는 부지런한 효심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도외시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sup>13)</sup>(1916. 08. 17. 이운연 작성)

위 두 통의 편지는 내용상 간역이 마무리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계간록이 1916년 3월 25일자가 마지막 기록인 것으로 보아 실제 3월말 4월초 즈음에 간역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반책기에도 보듯 『서계집』은 출간 이후 도산서원을 비롯해 도내 외 각 개인 및 문중에 배포되었는데, 이를 받아본 이운연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서계집』간행은 업무 분장부터 간역소 내방 및 부조금 전달, 그리고 배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공동출판의 형태로 이루어졌던만큼, 결과물 역시 공동 소유였다. 당시 문집 간행은

11) 『西谿集刊役日錄』35면.

12) 『西谿集刊役日錄』32면, “況聞先王考府君文集已至刊行, 僉君子勤懇之誠繼述之志可想.”

13) 『西谿集刊役日錄』31면, “今者, 先大府西谿翁遺集已鋳而已布, 實吾徒之幸, 況又惠及於樵牧之社, 不惟繼述之勤孝, 實賀愛人之不外.”

오로지 개인의 사업이 아닌 해당 문중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인·물력이 총동원된 지역 사회의 큰 행사와 다름없었으며, 이렇게 유림들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제작된 문집은 공동 자산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보았듯 ‘賀狀’아래에 수록된 6통의 편지는 편제명에서 유추하는 바와 달리 간행에 대한 ‘축하인사’만을 담고 있지 않다. 간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부터 완성 후 배포에 이르기까지, 간역 전후로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가 편지 속에 담겨져 있다. 여느 간록의 경우라면 이러한 편지 내용은 일기 형태로 수신 날짜의 해당 일자에다 옮겨 적어 놓았을 법한데, 서계간록은 왜 이러한 구성을 택했던 것일까. 추측컨대 아마 서계간록의 기록이 1916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터라 6통의 편지 중 그보다 앞서 작성된 3통의 편지를 간록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특정 편지에 대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간록 일자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나름의 아쉬움(?)이 편제 기획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 실제 사정이야 어쨌든 간역과 관련해 주고받은 다양한 메시지를 기록해두려는 작성자의 기획 의도만큼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2. 한시의 경우

한시는 총 13편으로, 金翰周(1856~1929)의 原韻을 비롯해 12인의 次韻詩가 수록되어 있다. 김한주는 『서계집』 간행을 주도한 김영규의 장인으로, 서문을 작성한 척암 김도화의 문인이기도 하다. 김한주는 원운에 대한 서문에서, “병진년(1916) 3월에 그의 할아버지 서계 선생의 유집을 간행하여 배포하였다……몹시도 감탄하던 끝에 우연히 한 수의 근체시를 지어 간역소의 여러 군자에게 올린다[歲赤龍暮春者, 刊布其先王考西谿先生遺集……感嘆之極, 偶得近體一律, 仰呈于刊所僉君子].”라고 하여 간역에 참여한 일원들에게 시를 지어 바쳤다. 자신의 사위가 이룩해 낸 일에 대해 기특해하면서, 이와 동시에 간역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시를 지어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한주가 사용한 운자를 따라 뒤이어 12인이 차운함으로써 이 날의 기쁨을 시로 남겼다.

아래는 김한주의 원운이다.

巾藏幾歲此時成	상자 보관한 지 몇해만에 이제 문집완성하니
幸觀儒林氣數亨	다행히 유림의 기수가 형통함을 보겠구나
隱德潛光能闡發	숨은 덕 잠긴 광채가 발휘될 수 있고
微言大義自分明	은미한 말씀 큰 의리는 절로 분명해졌네
銀根勘校斯文蹟	글자를 교감하는 일은 사문의 업적이고
劊劊精功後學誠	판각하는 정교한 일은 후학들의 정성이네
三冊煌煌傳世寶	찬란한 세 책의 문집 대대로 보물로 전해지리니
肖孫善繼乃家聲	후손들이 그대 집안의 명성을 잘 계승하리라

서계옹의 유고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유림의 형통한 운수 덕분이며, 그로 인해 문집 속에 깃든 망자의 덕망과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음을 송축하였다. 간역을 위한 원고 교정과 판각 작업은 집안 후손, 그러니까 서계옹의 손자 김영규의 정성 덕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이번 간행된 세 책의 『서계집』은 선조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을 가보로 대대로 전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김한주는 사위가 일구어낸 일을 축하할 뿐 아니라 간역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던 것인데, 그리하여 이들에게 수고의 인사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자 차운을 요청하게 된다. 아래는 김한주를 비롯해 차운에 동참한 12인의 명단 및 관련 기록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수록순서	작자	비고
1	金翰周	
2	손자 金永奎	간역 총괄
3	聞韶 金寅洙	
4	聞韶 金胄和	
5	족손 金永翼	板校
6	永嘉 權秉準	3월 10일 방문
7	竹溪 安承國	3월 16일 방문, 부조 五兩

8	宣城 李直烈	監刊, 부조 三兩
9	永嘉 權相烈	監刊
10	淳昌 薛鎮世	監刊, 3월 10일 방문, 부조 五兩
11	豊山 柳東濬	
12	竹溪 安燦重	都辨, 12월 19일, 3월 10일 방문
13	永春 李學基	3월 21일 방문, 부조 2兩

이들은 대부분 간역에 참여한 이들로, 실제 김인수, 김주화, 류동준 등 3인을 제외하고 차운한 이들은 모두 앞서 爬錄 및 일자별 기록에서 확인된다. 김영익은 판각을 교정하는 板校 업무를, 권병준은 3월 10일 간역소 방문, 안승국은 3월 16일 방문 및 부조금 오량 전달, 이직렬은 간행을 감독하는 監刊 업무 및 부조금 삼량 전달, 권상렬 역시 감간 업무, 설진세도 감간 업무 및 3월 10일 방문과 부조금 오량을 내었다. 또한 안찬중은 都辨 업무 담당 및 12월 19일과 3월 10일 총 2차례 방문 하면서 부조금 오량을 내기까지 하였고, 이학기는 3월 21일 방문하여 부조금 2량을 내는 등등 간역에 실무를 담당하였거나 간역소를 방문하고 부조금을 내는 등 간역을 위해 안팎으로 도움을 준 인물군을 중심으로 차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시 수록 순서는 앞서 편지의 경우에서처럼 작성순은 아닌 듯하다. 김영규의 한시를 제외하고 ‘追稿’ 혹은 ‘拜稿’ 라는 단어가 각각의 한시 말미에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 날 한시에 모여 지었다기보다 원운을 받아 읽어본 후 각자 시를 지은 대로 김영규 집안에 보냈고 이후에 이를 옮겨 적은 듯하다.<sup>14)</sup> 아래는 김영규의 시이다.

辱孫綿力未遑成    못난 후손 힘 부족해 문집완성할 겨를 없어  
會待吾家運泰亨    우리 가문의 운수 크게 형통할 때를 기다렸네  
摩挲篋篋遺謨在    상자를 어루만짐에 유업이 남아 있었더니

14) 한편 편지의 경우에서처럼 작자의 생년순으로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들의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는다.

掃去纖塵古鏡明	먼지를 쓸어냄에 옛 거울 다시 밝아졌네
幸賴良工精巧手	다행히 뛰어난 장인의 정교한 솜씨에 의지하고
猥蒙多士衛尊誠	외람되이 많은 선비의 위존의 정성을 입었네
追慕當年叨陪事	그 옛적 외람되이 모시던 일을 추억하니
中宵泣血更吞聲	한밤에 슬피 울며 다시금 울음소리 삼키네

간행의 총괄책임자였던 만큼 누구보다 큰 공력을 쏟았던 것은 바로 서계옹의 손자, 즉 김한주의 사위 김영규였다. 조부 사후 즉시 원고를 수습하여 간행을 도모하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여력이 없어 세월만 보내던 차, 문운의 용성을 만나 실력 좋은 각수와 정성 어린 유림들의 도움 덕에 문집을 무사히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조선후기 안동지역에서 간행된 문집 가운데 광산 김씨 문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sup>15)</sup> 김영규 집안에서 문집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경사였다. 그 어떤 官力에 의존하지 않고 막대한 경비를 개인 문중에서 마련하여 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서계집』간행은 문중 내 최대 사업이었다. 조부가 살아계시던 그 날을 회상하며 진즉 간행해내지 못한 못난 자신을 자책하는 한편, 지금 이 순간에 감개무량한 나머지 울음을 삼키는 내용이다.

斯文今始斐然成	사문이 지금에야 비로소 찬란히 이루어지니
適值名家氣數亨	때마침 명가의 형통한 운수 만났네
百鍊精金工上緻	백번 단련된 정금 그 공력 가장 치밀하고
雙聯韻玉箇中明	한쌍의 구슬 같은 운옥 그 속에서 밝게 빛나네
若非賢祖難開學	어진 선조 아니었다면 학문 열기 어려웠고
不有令孫曷致誠	훌륭한 후손 없었다면 어찌 정성을 바쳤으리
多少青襟裁賀幅	몇 명의 선비들이 축하하는 시문을 지으니
齊聲猶勝寂無聲	한 목소리 내는 것은 소리없는 침묵보다 낫다네

15) 당시 안동에서 간행된 144종의 문집 가운데 『龍山世稿』만이 광산 김씨 집안에서 발행된 것이라 한다.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 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조선사연구회, 2007.

설진세의 차운시이다. 그 역시 『서계집』 간행은 유학과 서계 집안의 운수가 형통했던 덕분이며, 서계옹의 문장은 백번 단련된 금과 한 쌍의 옥구슬처럼 찬란하다고 평가하였고, 또한 서계옹 같은 어진 선조가 있었기에 김영규 같은 훌륭한 후손이 있었던 것이라며 서계 집안을 함께 칭송하였다. 게다가 이 날의 기쁨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명이 수창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마지막 구에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 순간 또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간행을 감독한 권상렬은, 판목을 번갈아보며 정교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오자를 가려내었다고 하여 자신의 업무를 시구에 읊기는가 하면, 안찬중과 이학기는 훌륭한 후손 덕에 서계 집안의 명성이 잘 계승되었다 하여 서계 집안의 경사를 시구로 남겼다. 즉, 차운시를 남긴 이들은 인력 물력을 제공하여 실제 간역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간역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였고, 간행 이후 차운에도 동참함으로써 4개월간의 대장정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였다. 이들의 화차운은 단순한 시문 수창에 그치지 않고, 문중 대역사의 마감을 기념하고 이날의 기쁨을 차운 형태의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서계집』 완성을 축하하고 이를 후손 대대로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 IV. 나가며 : 『서계집간역일록』의 자료적 가치와 그 의미

제목에서 이른 바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일상으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SMS)에서 필자가 착안해 사용한 용어이다. 과거에는 종이와 먹을 사용해 쓴 손글씨 형태였다면, 지금은 무선단말기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형태인데, 주고받는[授受] 모습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 작성은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대표적 문자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계간역에 수록된 편지와 한시를 통해 수수 행위에 주목한 바, 편지에서는 원고의 실제 교정 내용과 발문을 청탁한 정황, 간역에 도움을 준 내용, 완성본의 배포 정황 등 문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한시에서는 문집 간행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詩作 행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간역 과정에서 편지를 주고받고 詩作을 하는 사례는 서계간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채재공의 『번암집』간행에 대한 『간소일기』의 경우, 1824년 4월 16일, 5월 3일, 5월 10일 등의 기록에 문집 간행 허가 및 간행 비용에 대한 사실을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가하면, 노상직의 『소눌집』간행에 대한 『간소일록』의 경우 1933년 3월 19일, 4월 8일 등의 기록에는 간역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수창 장면을 심심찮게 엿볼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정황은 문집 간행 과정에서 문자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나아가 한문 창작이 종식을 고한 줄로만 알았던 근대에도 한문자의 수수는 지식인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소통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간역일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적지 않다. 첫 번째, 간역일록의 활용 문제이다. 문집 저자와 관련된 문중의 지역 사회 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하였는지 등 해당 지역 사람들의 공동 간역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업무 분정 기록, 내방객, 부조기, 배포처 등에 기록된 명단은 해당 가문의 지역 사회 내 위상과 입지를 가늠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제작 시기를 전후한 해당 문중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간역일록에 문집 내용에 대한 교정 논의가 담겨져 있는 만큼, 문집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산삭 변개 여부를 고증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간역일록의 제작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간역일록이 19~20세기에 집중 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시기에는 이전에 미처 간행하지 못한 문집을 初刊하거나, 기존 간행된 문집을 重刊하거나, 그리고 당대 인물 문집의 初刊하는 등 다양

---

16) 번암집에 대한 『간소일기』와 소눌집에 대한 『간소일록』의 내용은, 신상목 등이 번역한 『문집판각의 기록, 간역시 일기』(한국국학진흥원, 2015)를 참고하였다.

한 인물들의 문집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17)</sup> 이 시기 문집 간행의 급격한 증가를 두고 ‘선조의 선양’과 ‘후손들의 안위’에 초점을 두고 망자를 위한 추모 사업인지 살아있는 후손들의 생존문제였던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유럽에 대한 유화정책을 펴는 일환으로 각 문중의 문집 간행을 몰래 지원해주는 계약 역시 작동되었던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sup>18)</sup> 이 시기 간역일록 제작이 지니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집 간행에 그치지 않고 간역일록까지 남겼던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문집 간행이 저자의 생전 유문을 후대에 전하는 일이라면, 간역일록의 제작은 간역의 전체 과정을 기념·기억하기 위해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선조에 대한 또 다른 메모리얼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망자에 대한 추모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서 제향을 하며 서원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집 간행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문중 내 책판 제작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 다. 활자의 경우 인출 후 해체되기에 보존이 불가능하지만, 목판은 대대로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의 영구 보존을 위해 문집의 목판 간행을 선호했던 것인데, 이 시기 목판본 제작이 활발했던 것<sup>19)</sup>과 간역일록이 집중 제작되었던 것은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지역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명망 있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출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전말을 다시 한 번 기록하여 후대에 남긴 것은, 기록을 통한 메모리얼 기능에 주목했던 것이며 이것이 근대에 이

17)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편찬과 대구 경북지역의 상황」, 『대동한문학』49, 대동한문학회, 2016. 참조.

18) 일제강점기 유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한다.

19) 실제 조선후기 안동지역에서 간행된 판본 154건 가운데, 목판본이 145종이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 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조선사연구회, 2007.

르기까지 안동 지식인들에게 유효했던 행위라는 점에서 서계간록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간역일록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사이트-

유교넷, <http://www.ugyo.net/>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http://diary.ugyo.net>

### -저서-

남권희 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신상목 외, 『문집판각의 기록, 간역시 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상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 -논문-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 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조선사연구회, 2007.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 문화적 의의-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박지현, 「한말 일제시대 유교 지식인의 지적 곤경과 근대 지식의 모색-해악 김광진의 해악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4, 한국고전번역원, 2014.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6, 한국고문서학회, 2015.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2011.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민족문화사연구』 55, 민족문화사학회, 2014.
- 조정근,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문집 간행 과정상의 분쟁-安邦俊의 저술 『隱峯全書』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62, 한국서지학회, 2015.
-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편찬과 대구 경북지역의 상황」, 『대동한문학』 49, 대동한문학회, 2016.

Abstract

## Message sent to a certain Publishing office(刊役所) in Andong

-Focusing on letters and Chinese poems in ‘Daily Journal for  
Seogyejip (西谿集刊役日錄)’ -

Lee, Mi-jin

This study focuses on the writing activities exchanged by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region appearing in ‘Daily Journal for Seogyejip (西谿集刊役日錄)’ which records the publication process on a daily basis of Seogyejip (西谿集) written by Seogyae Jae-chan Kim (西谿 金在燦, 1811~1888). Publication of Seogyejip began in 1915, 27 years after Jae-chan Kim passed away, led by his grandson Young-gyu Kim (金永奎) an, a total of four months of publication process from November 28, 1915 to March 25, 1916 recorded in Daily Journal for Seogyejip (西谿集刊役日錄), consists of 8 sections recorded in the following order; ① job assignment for workforce of the publication office, ② persons who visited the office, ③ details of expenditures and incomes for the publication, ④ the list of contributions and amounts, ⑤ the targets for distribution of the collection of the book, ⑥ letters received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⑦ ‘Goyumoon (告由文)’ written to inform the shrine for ancestors of the completion of the publication of the book and ⑧ Chinese poems written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books.

Among these, paying attention to the letters of congratulation, the author of this study confirmed the communications regarding actual details of corrections on the manuscript, request for writing epilogu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inished collection in the letter and also confirmed the scenes of collaborative poem writing in Chinese poems. This situation implies that, even in modern times when Chinese writing has been known to have ended, teaching and learning of Chinese was still used as an effective communicative tool among intellectuals, which is witnessed in literary activities by Confucius scholars of Andong region manifested in letters and Chinese poems surrounding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Daily Journal for Seogyejip (西谿集刊役日錄). Production of a series of events regarding the publication in the form of daily journal beyond mere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 can be seen not only 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nd the social position of the family clan but also as an attention to the memorial function for ancestors through records. In this respect, there are not a few implications which Daily Journal for Seogyejip (西谿集刊役日錄) present us today.

**keywords**

implications which Daily Journal for Seogyejip(『西谿集刊役日錄』), Seogyae-chaan Kim(西谿 金在燦), publishing space(刊役所),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books, publish.